불광사 사태 해결, 창건주 승계 합의

불광미디어는 지홍 스님이 8년간 운영키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점거와 해고, 민사소송 등 극한 대립까지 치달았던 불광사 사태가 양측의 합의로 인해 일단락됐다. 전 회주 지홍 스님이 불광사 창건주 권한을 광덕문도회에 승계하기로 한 것이다.

지홍 스님과 광덕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 불광사 법주 지오 스님, 박홍우 불광법회 법회장 등은 9월 28일 서울 법안정사에서 불광사 창건주 권한 승계에 대한 자리를 갖고 원만해결의 합의를 체결했다.

이날 지홍 스님 측은 합의 체결 후 불광사 창건주 직을 문도회장 지정 스님에게 승계하고, 사태 관련자들은 10월 8일까지 상호간 민사소송 및 형사고발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합의 체결에는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참석했으며, 소송 취하를 보고받아 창건주 권리 승계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10월 8일 이전이라도 형사고발 취하가 이뤄지면 승계절차는 이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불광사 종무원과 산하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다.

또 현재 월간불광과 한강수출판, 불광미디어로 구성된 주식회사 불광미디어는 8년간 지홍 스님이 운영한 후 주식을 불광사에 양도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본공 스님이 소유한 주식도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9월 28일 대각회 중재로 진행
양자 소송 취하 후 권한 이양
불광사 직원 고용안정도 명시

지홍 스님은 창건주 승계절차가 완료된 날부터 2주내로 불광사 산하 반야원, 불광유치원, 불광연구원 및 수탁기관의 직위에서 사임하고, 문도회 대표 지정 스님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행키로 했다.

앞서 지홍 스님은 종무원과 부적절한 메시지 및 불광유치원 임금 부정 수급 의혹을 받아 6월 3일 회주직을 사퇴했다. 6월 13일 광덕문도회를 떠났지만 창건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부 신도들의 반발로 사찰 점거 사태까지 이어졌다.



불광사 사태 일지

6월	3일	불광사 명등 일동, 지홍 스님 사퇴 압박
	4일	지홍 스님 의혹 반박 및 창건주 유지 입장
	13일	지홍 스님 광덕문도회 탈퇴 문도회 지오 스님 회주 선출
	26일	불광사 직원들, 호법부에 혜담 · 본공 스님 징계 요청
7월	6일	불광사 명등 일동, 지홍 스님 형사고발
	10일	대각회 정상화위 구성
	31일	불광사 직원들, 노조 결성
8월	20일	대각회 정상회위 2차 회의서 위원장 흥교 스님 사퇴
	23일	불광사 노조, 본공 스님 성추문 의혹 제기
9월	10일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 취임, 양자 중재 진행
	28일	대각회 회의서 양자 합의 타결

불광사 · 불광법회 명등 일동은 7월 6일 지홍 스님을 횡령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양측의 대립 속에 대각회가 7월 10일 불광사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발족해 해결에 나섰지만 폭력사태까지 번졌다. 이후 불광사 종무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용안정과 신변 안전을 위한 노동조합을 7월 31일 결의했다.

불광사 노조는 8월 23일 지홍 스님의 의혹을 제기한 본공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다시 제기했으며, 이에 본공 스님은 27일 참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양측의 의혹 제기와 소송 등 대결 국면 속에 사태는 불광사 정상화대책위까지 사실상 와해되며 극한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9월 10일 대각회 새 이사장으로 태원 스님이 취임하며 양자 간 협의가 다시 진행됐으며, 28일 대각회 이사장 태원 스님이 입회한 가운데 전격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진호국가사상' 문화축제로 승화

진각종, 10월 잇달아 회당축제 · 월곡달빛축제

종조 유지 기리는 회당축제
올해 경주서 처음으로 개최
신라 의식 문두루법 시연도

과거 천재지변이나 외세 침입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밀교의식으로 국가를 수호하는 '진호국가사상'이 10월 한 달간 진각종서 다양한 문화축제로 펼쳐진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10월 13일 오후 4시 제2회 월곡달빛축제를 월곡1동 동신아파트~아남아파트 앞 대로변 200m 구간에서 개최한다. 행사장에는 서울시민예술대학 전통한지등학교를 거쳐 시민작가들이 제작한 등과 성북문화재단 이주여성센터, 월곡종합사회복지관 성북외국인근로자센터 등 강의를 통해 제작된 등을 비롯해 총 500여개의 달빛등이 전시된다.

또한 생명의전화, 월곡1 · 2동 주민자치위원회, 동덕여대 등 지역민과 예술인 등이 동참하는 먹거리마당, 체험 및 공연마당이 펼쳐지며, 오후 6시 30분 점등식이 진행된다.

오랫동안 진각종 종조 회당 정사의 가르침을 기리며 울릉도 일대를 달군 '회당문화축제'는 10월 24~26일 경주로 무대를 옮긴다.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에서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하며 행사의 또 다른 가능성을 내다본 진각종은 올해 천년고도 경주에서 식재 · 증익 · 항복 · 경애 4가지 테마로 회당문화축제 백미인 진호국가 콘서트를 연다.

이 행사에는 지진피해를 겪은 경주의 자연재해가 식재되고, 남북관계가 증익되길 바라는 서원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신라문화원과 경주교구청 및 심인당이 준비한 불교 · 전통문화체험마당이 마련되며, 진각종 장엄등 10여 점이 대릉원 일대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26일 경주서는 '문두루법' 시연회가 진행된다. 한국밀교문화총람사업단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시연회서는 진각종 스승들이 나라안녕과 국가발전 염원을 담아 문두루법 의식을 재현한다. 문두루법은 신라시대 명랑법사가 당나라군을 막기 위해 주도한 국가차원의 불교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장학위 종단 장학승 선발

11월 9일까지 접수

조계종 장학위원회(위원장 보광)가 '2019학년도 종단 장학승'을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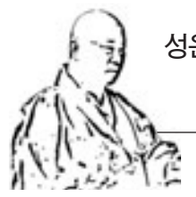
선발대상은 국내외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석 · 박사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희망하는 스님과 조계종법에 의해 설립 · 인가된 승가대학원의 전문 · 연구과정에서 수학하는 스님들이다.

선발 분야는 불교학을 비롯해 제학문 분야를 포괄한다. 다만 '계율(율장 · 청규)' '한국불교사(근 · 현대)' '종교법무 · 행정 · 경영' '불교문화(음악 · 영상 · 미술 · 건축 · 의례 등)' '불교심리학(심리 · 명상 등)' 분야 지원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한 △각급 승가고시 수석(최우수) 합격자 △동국대 · 중앙승가대 수석 졸업자 △교육원 주최 학인대회 수상자 △국제불교영어학과 · 한국불교융합학과 졸업자 △사찰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원 상주교수 역임자 등에게는 선발 시 가산점이 부과된다.

장학금은 등록금 · 연구비 등을 포함해 책정하며, 선발 장학승의 해당 과정 수료 시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월 9일까지며, 제출서류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02)2011-1818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6도 윤회 벗어나기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는 중생의 생활방식을 6가지로 구분하여 6도(六道) 중생이라고 합니다.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 6도인데 우리는 이 6가지 길을 하루에도 수천 수백 번씩 오르내립니다. 이처럼 6도 세계에서 윤회전생(輪廻轉生)하는 것이 6도 윤회(六道輪廻)입니다.

중생이 몸과 말과 뜻으로 어떤 업을 지었는가에 따라 죽은 뒤 6도 윤회하듯이,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도 6도 윤회를 하고 있습니다.

*6도 중에서 지옥, 아귀, 축생을 3악도(三惡道)라고 합니다.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도는 매우 악한 행위를 한 사람이 태어나는 곳입니다. 인색하여 보시를 하지 않은 사람은 아귀도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습니다. 축생도는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과보입니다.

아수라, 인간, 천상을 3선도(三善道)라고 합니다. 아수라도는 남의 잘못을 따지고 규탄하는 이들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곳입니다. 인간도는 10선과 5계를 닦았으나, '탐진치' 삼독이 내재된 이들이 갑니다. 불법을 수행하기에 가장 좋은 세계입니다.

천상도는 행복이 갖추어진 곳이지만 극락이나 열반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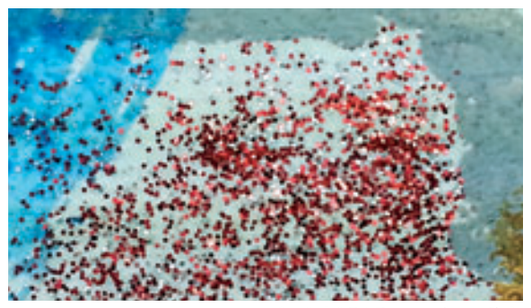
6도 윤회는 업보의 법칙으로 그 업이 다하면 끊임없이 다른 세계로 윤회전생합니다.

*앞에서 살펴 본 죽은 뒤의 6도 윤회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대로 전개됩니다. 마음에 번뇌와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지옥이고, 탐심이 가득하면 아귀입니다. 인면수심(人面獸心)이란 말이 있듯 짐승처럼 어리석으면 축생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수라에도 가고 인간계 또는 천상의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지난 8월 폭우가 쏟아질 때 서울의 어느 한옥집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을 잘못 모셔서 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는 물난리의 아수라장에서 자기 집 재해의 원인을 불효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인과를 믿고 불효를 참회하고 있었습니다. 참회는 부처님의 빛으로 허물을 고치고 업장을 소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백겁적집죄(百劫積集罪) 일념돈탕제(一念頓蕩除)입니다. 마음에 6도세계가 없으면 6도에 갈 일이 없습니다.



육도윤회 응무소주 그림 · 조향숙

날마다 수없이 윤회 반복
6도 만드는 '생각 말 행동'
이고득락 해탈의 열쇠

*나와 내 것에 집착할 때 6도 중생은 윤회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집착에서 생기는 탐진치의 업 덩어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 속에서 6도가 만들어 집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하면 6도에 걸림없는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자신의 삶을 순간순간 들여다보고 참회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무아를 통찰하면 우리는 중생에서 6도를 넘나드는 보살로 향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6바라밀을 수행하여 응무소주(應無所住)까지 가면 윤회를 벗어난 진공(眞空)의 무심이 나오고 묘유(妙有)의 이생기심(而生其心)에서 자비심이 나옵니다. 그자리가 6도에서 벗어난 화엄이고 법화 입니다. 지금 여기 현생에서 이고득락 해탈의 삶을 삽시다. 말과 행동과 생각이 그 열쇠입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